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앞선 의술 더 큰 사랑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138-736, Korea
대표전화 : 1688-7575 홈페이지 : <http://cancer.amc.seoul.kr>

우리의 꿈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증상 설명

항암화학요법은 폐조직에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표준용량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드물게 특정 항암제를 일정량 이상 투여한 경우 폐조직에 영향을 주어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사용할때는 미리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사용하는 용량에 있어서도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힘든 일을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폐 손상 뿐 아니라 감염이나 빈혈, 심장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길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폐조직이 손상되었다면 의료진은 항암제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폐조직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치료가 끝난 후 수 주일이 지나면 호흡곤란 증상은 다시 서서히 회복됩니다.

대처 방안

-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은 폐조직을 확대시켜 호흡곤란을 예방합니다.
- 코로 깊게 들이 쉰 다음 5초 정도 참았다가 기침을 하며 숨을 내쉽니다.
- 힘든 일을 피해야 하며, 특히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가장 편안하게 호흡을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 만약 담배를 피운다면 금연하도록 합니다.

